

# 울산, 중국 신증설 영향으로 부진

## 7월 화물 물동량 6.2% 감소 ... 수입·환적 정체에 수출화물 급감

울산항의 7월 화물 물동량이 중국 정유시설 증설과 신규설비 가동의 영향으로 감소했다.

울산항만공사(UPA)는 울산항의 7월 화물 물동량이 1579만톤으로 2012년 7월 1683만톤에 비해 6.2% 줄었다고 8월20일 밝혔다.

수입화물은 892만톤으로 1.2%, 환적화물은 18만톤으로 0.1% 증가했으나 수출화물은 499만톤으로 12.8%, 연안화물은 171만톤으로 19.4% 감소했다.

울산항의 주력 화물인 액체화물은 원유 수입과 석유정제제품 수출 감소로 7.6% 감소해 1250만톤에 불과했으나 전체 물동량의 79.2%를 차지했다.

컨테이너 화물도 3만5356TEU를 처리해 0.9% 감소했다.

울산항은 외항선 입항이 1040척으로 4척 감소하는 등 입항 총 톤수도 1647만톤으로 0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21>